샴페인 대신 구슬땀…KIA 선수들 '뜨거운 성탄'

베테랑부터 신참까지 내년 준비…챔스필드 웨이트장·연습장 문전성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챔피언스필드는 훈련 열기로 뜨거웠다.

12월, 1월은 KBO리그의 비활동기간으로 쉼 없이 시즌을 달려온 선수들이 모처럼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휴식기'지만 KIA타이거즈 선수들의 시즌은 진행형이다. KIA 선수들은 챔피언스필드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24일도 예외는 아니었다. 개인 훈련을 하는 선수들로 챔피언스필드 웨이트장과 실내 연습장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마무리캠프 기간에도 경기장에 출퇴근했던 베테랑 최형우는 이날 오전 일찍 경기장을 찾아 개근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아쉬운 시즌을 보낸 나지완도 구슬땀을 흘리며 설욕의 2020시즌을 준비했다. 외야수 박준태와 내야수 최정민도 챔피언스필드를 지키는 성실맨이다.

박준표, 문경찬을 필두로 '마운드 경쟁'을 벌이고 있는 '92년생 동기'들도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냈다.

이준영, 박동민, 이민우, 홍건희, 양승철 등 투수진과 유일한 야수인 김호령까지 92친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했다.

2019시즌 희비가 엇갈렸지만, 이창진과 임기영도 더 나은 2020시즌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훈련을 이어갔다.

'예비역'이 된 내야수 박정우, 투수 김현준과 포수 한승택, 내야수 황윤호 그리고 새신랑 고영창까지 선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휴식기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3㎏가량 감량하면서 시즌보다 날렵해진 이준영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쉴까 생각도 했는데 나와 타협해서 야구장에 나왔다(웃음)"며 "생각보다 많은 선수가 나와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타지에서 온 '외지인'이지만 광주가 이들에게는 마음 편한 고향이 됐다. 12월 초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온 선수들은 본격적으로 훈련에 속도를 내면서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한승택은 "본가가 양평인데 3주 정도 머물다 내려와서 운동을 하고 있다"며 "형들과 하는 이야기가 '광주 오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웨이트에 집중해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숙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허리가 좋지 않아 전역 후 재활을 해왔던 김호령은 "운동을 하는 게 재미있다. 부상 없이 1군에 있는 것을 목표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투수 이준영(왼쪽)과 박동민이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웨이트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진공청소기' 김남일 K리그1 성남 지휘봉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으로 한국 축구의 4강 진출에 힘을 보탠 김남일(42)이 프로축구 K리그1 성남FC의 지휘봉을 잡는다.

성남 구단은 23일 "2020년 팀을 이끌 새로운 사령탑으로 김남일 감독을 선임했다"라며 "다년 계약을 보장했다. 세부적인 계약 기간과 조건은 상호 합의에 따라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남기일 감독이 지난 16일 계약 기간을 1년 남기고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성남은 후임 사령탑 선임에 나섰고, 현역 시절 K리그와 해외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김남일을 후임 감독을 결정했다.

2000년 전남 드래곤즈를 통해 K리그에 데뷔한 김 감독은 네덜란드, 러시아, 일본 등에서 프로 생활을 했고, 태극마크를 달고 3차례 월드컵(2002·2006·2010년)에 출전해 A매치 98경기를 소화했다.

김 감독은 2016년 현역에서 은퇴한 뒤 장쑤 쑤닝(중국)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대표팀 코치를 역임했고, 올해 전남 코치로 합류해 지도자 경력을 쌓았다.

감독 선임을 마무리한 성남은 내년 1월 4일 태국 치앙마이로 1차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연합뉴스

다음달 호주오픈 테니스 단식 우승 상금 33억원

2020년 1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이 412만 호주달러(약 33억2000만원)로 책정됐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는 24일 "2020년 대회 총상금 액수를 7100만 호주달러로 책정했다"며 "이는 2019년 대회보다 13.6% 인상된 규모"라고 발표했다.

올해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410만 호주달러였다.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해도 한국 돈으로 7200만원에 달하는 9만 호주달러를 주고, 예선 1회전에서 패하더라도 2만 호주달러가 지급된다.

10년 전인 2011년 대회의 총상금 규모는 2500만 호주달러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3배 가까이인 183.9%가 증액됐다.

2020년 호주오픈은 1월 20일 개막해 2월 2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선수로는 권순우(88위·CJ 후원)와 한나래(181위·인천시청)가 남녀 단식 본선에 올라 있고, 남자 복식 남지성(세종시청)-송민규(KDB산업은행) 조도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2018년 이 대회 단식 4강에 오른 정현(128위·제네시스 후원)은 예선부터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퇴장' 손흥민 3경기 출전정지

징계 확정시 다음달 5일 복귀…토트넘 항소

경기 중 발로 상대 선수의 가슴을 가격해 레드카드를 받은 손흥민(27·토트넘)이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24일 징계 선수 명단에 손흥민의 이름을 올리고, 3경기 출전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3경기에는 26일 브라이턴, 29일 노리치시티, 내년 1월 2일 사우샘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포함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손흥민은 내년 1월 5일 미들즈브러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부터 뛸 수 있다. 프리미어리그 복귀는 1월 12일 리버풀전이 된다.

손흥민은 23일 첼시와의 2019-2020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후반 17분 상대 수비수 안토니오 뤼디거와 볼을 다투다 넘어진 뒤 발을 뻗어 뤼디거의 상체를 가격해 퇴장당했다.

넘어진 뒤 다리를 한 번 더 뻗어 발바닥이 뤼디거의 가슴 쪽으로 향한 장면이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확인되며 곧장 레드카드를 받았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장 이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건 세 번째다.

5월 본머스와의 2018-2019시즌 3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퇴장당해 당시에도 3경기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 이어져 1~2라운드에 결장했다.

지난달 에버턴과의 리그 11라운드 때는 안드레 고메스에 대한 백태클로 퇴장과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퇴장 자체가 철회되면서 출전 정지 징계도 풀린 바 있다.

토트넘은 이번에도 항소했다.

모리뉴 감독은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퇴장 판정이 잘못됐다며, 오히려 뤼디거가 손흥민에 대한 파울로 먼저 경고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BBC에 실린 인터뷰에서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이 5번이나 벌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첫 번째는 뤼디거가 그에 대해 저지른 파울, 두 번째는 퇴장, 세 번째는 브라이턴과의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것, 네 번째는 노리치와의 경기에 뛸 수 없는 것, 다섯 번째는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 결장하는 것이다. "두 번(퇴장)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5번째까지 받을 만한 것은 아니다"고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죽어도 못 보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라인배커 에릭 윌슨이 23일 미네소타 주 US 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NFL 경기에서 그린 베이 패커스의 와이드 리시버 앨런 라자드를 태클로 저지하고 있다. 그린 베이 패커스가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23-10으로 누르고 NFC 북부지구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연합뉴스